

故 事 와 불

(연재 제18회)

월 광 욕(月光浴)

이 세상은 유럽처럼 태양에 굽주린, 그래서 태양신을 흠모하는 아폴로 문화권과 인도처럼 태양열이 지겨운, 그래서 달을 사랑하는 다이아나 문화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아폴로(Apollo-太陽神) 문화권에서는 차가운 달을 저주하고, 다이아나(Diana-月神) 문화권에서는 뜨거운 해를 저주한다.

다이아나 문화권의 대표격인 인도의 우화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어머니가 두 아들과 막내인 딸에게 호두를 공평하게 나누어 준 다음, “내가 먹을 몫이 없으니 너희가 가진 것 중 하나씩만 되돌려 달라”고 했다.

말아들은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하면서 썩은 호두 하나를 주었고, 둘째는 제일 작은 것을 돌려 주었으며, 막내는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호두를 골라 되돌려 주었다.

이에 어머니는 세 아이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축복과 저주의 말을 건넸다.

먼저 막이에게는 “너는 아주 나쁜 아이다. 너같은 아이는 죽어서 모든 사람으로 부터 저주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둘째에게는 “너는 맘씨가 못된 심술쟁이다. 죽어서도 마음이 잡히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고 괴로워 할 것이다.” 라고 했으며, 막내 딸에게는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다. “너는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 아이다. 죽어서 모든 사람으로 부터 사랑을 받고 흠모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아이들이 죽어서 무엇이 되었을까.

막내 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 받으며 노래와 시로 읊어지는 달님이 되고, 둘째는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며 허공을 헤매는 바람이 되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서 저주받고 증오를 받는다는 말이는 무엇이 되었을까. 당연히 햇님 곧 태양이 되었다.

담배가 탈 때 최고온도는 850℃, 연탄이 탈 때는 1,200℃, LPG 또는 도시가스가 연소할 때의 온도는 1,700℃ 내지 1,900℃로 측정된다. 인류 최초의 에너지로 시작하여 마지막 에너지로 남을지 모를 태양의 표면온도는 약 6,000℃로 나타나 있다.


지구의 평균온도 15℃를 유지시켜 주는 태양열이 지구에 전달되는 것은 복사(Radiation) 현상에 의한다. 복사란 전자와 형태의 에너지 전달현상으로써 진공 또는 공기중에서도 거의 손실 없이 열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지구 둘레의 약 3,700배)의 먼 거리를 거침없이 날아온다. 실로 경이로운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복사열이 때로는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된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때에 길 건너 수십미터 떨어진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창틀이 엇가락 처럼 휘 것 은 모두 이 복사열 때문이었다.

8월의 파리에 가면 개와 여행자 밖에 없다고 한다. 태양광이 부족한 유럽에서의 일광욕을 위한 대 이동을 두고 한 말이다. 북위 40도의 파리, 북위 52도의 런던 등 유럽의 도시인은 여름이 되면 모두 태양을 맞으러 바캉스를 떠난다. 도시는 문자 그대로 텅빈 바캉스(Vacant)가 된다. 그런데 만약 인도에서 바캉스를 떠나 일광욕을 한다면 가장 먼저 정신병원의 앰블런스가 출동할 것이다.

본래 우리나라에서의 여름철 피서지는 계곡이었다. 뜨거운 해를 피하고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면 그것이 피서였다. 지리적으로 태양광의 과잉지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서, 일광욕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닌 서구의 유행이었을 뿐이다.

우리의 옛 여인들은 계곡의 피서 대신 月光浴을 했다. 보름달의 정기를 흡입한 바닷가의 모래속에 하체를 파 묻고 그 정기를 체내에 흡수하는 월광욕을 했다. 그렇게 하여 생식력을 보강하였다고 한다. 음력 보름달의 명절이 유난히 많은 우리나라에서 월광욕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목화꽃이 탐스럽게 피는 저녁, 보름달이 떠오를 무렵 젊은 처녀들이 가슴을 헤치고 목화꽃에 교접을 하는 풍습도 월광욕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金 東 一 / 기술관리부 차장〉